

## 〈서동설화〉의 텍스트언어학적 분석 연구\*

— 영웅설화적 특성 고찰을 중심으로 —

채규현(전북대)

Chae Gyuhyeon, 2019. A Study on Textlinguistic Analysis of 〈Seodong tale〉: Focused on the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heroic tale. *Textlinguistics* 46.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heroic tale of 〈Seodong tale〉 with the Textlinguistic analysis. For this purpose I used Textlinguistic research methods. In this analysis, I identified characteristics of heroic tale of 〈Seodong tale〉 through analysis based on criteria of 'Structure of space-time', 'Structure of agent', and 'Structure of ev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eodong tale〉 had a characteristics of 'Separation of space-time', 'A story centered on Seodong', 'Facilitator's help', and 'The success of a central character'. In conclusion, through analysis, we could find that 〈Seodong tale〉 has characteristics of heroic tale. In this regard,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Seodong tale〉 also to understand characteristics of the tale.

〈Key Words〉 Seodong tale, Text, Textlinguistic analysis, Text Structure, Structure of space-time, Structure of agent, Structure of event, Characteristics of heroic tale, Seodong and Seonhwa, Facilitator.

---

\* 이 논문은 2019년 4월 20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한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19년 봄철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당시 학회에 참여하고 조언해 주신 많은 분들과 심사를 통해 논문이 보다 발전될 수 있게 도와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는 〈서동설화〉 텍스트를 텍스트언어학적 관점에서 분석<sup>1)</sup>하여, 〈서동설화〉의 텍스트 구조적 특성으로부터 도출되는 영웅설화적 특성을 살피는 것이다. 기존에 〈서동설화〉는 ‘백제 무왕(600~641)의 설화’나 ‘국적과 신분이 다른 청춘 남녀의 사랑이야기’, ‘서동요가 수록되어 있는 배경 설화’ 정도로 평가되어 왔다. 하지만 실제 〈서동설화〉의 텍스트 면면을 살펴보면 백제 무왕의 즉위를 정당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영웅설화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텍스트 구조 분석을 통해 영웅설화적 특성이 실제 〈서동설화〉 텍스트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기존 〈서동설화〉에 대한 연구는 고전문학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것은 ‘사재동(1999)’와 ‘조동일(2005)’의 연구이다.

### (1) 〈서동설화〉에 대한 기존 연구

#### ㄱ. 사재동(1999:452)

그는 전형적인 서동으로서 ... 그 집단의 무리들을 조종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영도자로서 서민 대중의 꿈을 실현시킬 영웅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 ㄴ. 조동일(2005:220)

미친한 백성이 왕이 되는 것이 설화에서는 가능했다. ... 마통이가 백제 무왕이 되고, 고구려 미천왕이 가련한 처지에서 떠돌아다니던 충각이었다고 하는 것이 그런 예이다.

- 
- 1) 텍스트언어학에서는 텍스트 구조 분석 방법을 분석 기준의 적용 방법에 따라 ‘계열적 분석’과 ‘통합적 분석’으로 나눈다. 본고에서는 〈서동설화〉를 하나의 완결된 텍스트로 보고 이를 일관된 분석 기준을 적용하여 전체 텍스트의 구조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계열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텍스트언어학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편찬한 《한국민속대백과사전(2012)》에서도 〈서동설화〉를 단순히 ‘국적과 신분을 초월한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 정도로만 평가하고 있다.

위의 연구들에서는 ‘서동의 출생’, ‘서동의 국적 및 신분’, ‘서동과 선화의 관계’ 등에 중점을 둔 연구를 통해 〈서동설화〉가 영웅설화적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밝혔다. 이는 〈서동설화〉의 영웅설화적 특성을 밝혔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영웅설화적 특성이 실제 텍스트 면면에서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적극적으로 살피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텍스트 자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서동설화〉에 대한 기존 평가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서동설화〉의 영웅설화적 면모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본고의 논의를 통해 설화 텍스트 연구에서 텍스트언어학적 분석 방법의 효용성을 밝히고, 더 나아가 그 밖의 설화 텍스트에 대한 텍스트언어학적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2. 설화 텍스트의 특징: 서사 텍스트의 유형적 특징과의 관련성

설화 텍스트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해당 텍스트의 텍스트적 특성을 밝히고, 그 특성에 따라 텍스트 유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설화텍스트는 텍스트 특성에 따라 ‘서사 텍스트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서사 텍스트 유형이 가지고 있는 유형적 특징들을 설화 텍스트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설화 텍스트의 특징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 (2) 설화 텍스트의 특징

- ㄱ.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991)
  - 일정한 구조를 가진 꾸며낸 이야기
- ㄴ. 한국민속대백과사전(2012)
  - 사람들 사이에서 전승되어 온 일정한 즐거리를 가진 허구적인 이야기

(2)에서 주목할 것은 설화 텍스트는 ‘일정한 구조(또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일정한 구조가 있다는 것은 설화 텍스트에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배경’, 이야기의 중심인물인 ‘행위자’, 이야기의 ‘사건’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즉 설화 텍스트는 ‘일정한 구조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텍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서사 텍스트 유형적 특징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3) 서사 텍스트의 유형적 특징

#### ㄱ. 권영민(2002)

- 한 인물을 중심으로 어떤 행위를 제시하고, 그 행위에 시간과 공간의 구체성을 부여하는 장르

#### ㄴ. 윤석민(2011)

- 일정한 줄거리를 가진, 실제적 또는 허구적 이야기

(3ㄱ)에 따르면 서사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시공간적 배경과 중심인물이 등장하며, 중심인물의 행위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3ㄴ)의 논의에 따르면 서사 텍스트는 일정한 줄거리, 즉 시공간적 배경 속에서 중심인물이 행하는 행위의 연쇄를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들을 정리하면, 서사 텍스트는 공통적으로 ‘시공간적 배경’과 중심인물로 대변되는 ‘행위자’, 행위의 연쇄로 대변되는 ‘사건’의 요소들을 담고 있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일정한 구조 즉 배경, 행위자, 사건구조를 담고 있는 설화 텍스트는 서사 텍스트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서사 텍스트 유형에 속하는 〈서동설화〉를 중심으로 텍스트 자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서동설화〉의 영웅설화적 특성이 구체적으로 텍스트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밝힘으로써 기존 연구 관점에 힘을 더하고자 한다.

### 3. 〈서동설화〉의 텍스트 구조 분석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설화 텍스트는 〈서동설화〉이다. 〈서동설화〉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설화로서, 본래 한문으로 기록된 텍스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한글로 번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존재한다. 하지만 본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번역의 정확성에 대한 논의<sup>3)</sup>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역들을 종합한 최적의 번역을 수록하고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2009)<sup>4)</sup>의 〈서동설화〉를 인용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효과적인 텍스트 분석을 위해 전문을 몇 개의 텍스트 단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sup>5)</sup>

#### (4) 〈서동설화〉의 전문

[T1] 제30대 무왕(武王)의 이름은 장(璋)이다.

[T2] 그 어머니가 과부가 되어 서울 남쪽 못가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못 속의 용(龍)과 관계하여 장을 낳았던 것이다.

어릴 때 이름은 서동(蓍童)으로 재주와 도량이 커서 헤아리기 어려웠다. 항상 마를 캐다가 파는 것으로 생업을 삼았으므로 사람들이 서동이라고 이름 지었다.

3) 하나의 텍스트와 이를 번역한 텍스트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상호텍스트성’ 또한 텍스트언어학의 주요 연구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텍스트언어학적 관점에서 〈서동설화〉의 텍스트 구조 분석을 통해 영웅설화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하는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상세히 다루지 않기로 한다. 다만 원문과 번역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상호텍스트성’ 연구 또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연구이므로 이는 후속 연구로 미루기로 한다.

4)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서동설화〉는 2009년, 정부의 문화콘텐츠진흥사업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작·운영하고 있는 ‘문화콘텐츠닷컴’에서 인용하였다.

5) 〈서동설화〉를 텍스트 단위로 구분할 때 〈서동요〉는 다른 하위텍스트들과 특징이 다르다는 점에서 별도의 텍스트 단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서동요〉를 별도의 텍스트로 다루기보다는 하나의 사건을 구성하는 요소로 보고 별도의 텍스트로 구분하지 않기로 한다.

[T3] 신라 진평왕(眞平王)의 셋째공주 선화(善花. 혹은 善化)가 뛰어 나게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는 머리를 깎고 서울로 가서 마을아 이들에게 마를 먹이니 이내 아이들이 친해져 그를 따르게 되었다. 이에 동요를 지어 아이들을 꺾어서 부르게 하니 그것은 이리 하다.

선화공주(善化公主)님은 남몰래 정을 통하고  
서동방(薺童房)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동요가 서울에 가득 퍼져서 대궐 안까지 들리게 되자 백관들이 임금에게 고하여 공주를 먼 곳으로 귀양 보내게 하여 장차 떠나려 하는데, 왕후(王后)는 순금 한 말을 주어 노자로 쓰게 했다.

[T4] 공주가 장차 귀양지에 도착하려는데 도중에 서동이 나와 공주에게 절하면서 모시고 가겠다고 하였다. 공주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저 우연히 믿고 좋아하여, 서동을 따라가면서 비밀리에 정을 통했다. 그런 뒤에 서동의 이름을 알았고, 동요가 맞는 것도 알았다.

[T5] 함께 백제로 와서 모후(母后)가 준 금을 꺼내 놓고 살어나갈 계획을 의논하자 서동이 크게 웃고 말했다.

“이게 무엇이요?”

공주가 말했다.

“이것은 황금이니 이것을 가지면 백 년의 부를 누릴 것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마를 캐던 곳에 황금을 흙덩이처럼 쌓아 두었소.”

공주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면서 말했다.

“그것은 천하의 가장 큰 보배이니 그대는 지금 그 금이 있는 곳을 아시면 우리 부모님이 계신 대궐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소이다.”

[T6] 이에 금을 모아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용화산(龍華山) 사자사

(師子寺)의 지명법사(知命法師)에게 가서 이것을 실어 보낼 방법을 물으니 법사가 말하였다.

“내가神通한 힘으로 보낼 터이니 금을 이리로 가져오시오.” 이리하여 공주가 부모에게 보내는 편지와 함께 금을 사자사 앞에 갖다 놓았다. 법사는神通한 힘으로 하룻밤 동안에 그 금을 신라 궁중으로 보내자 진평왕은 그 신비스러운 변화를 이상히 여겨 더욱 서동을 존경해서 항상 편지를 보내어 안부를 물었다. 서동은 이로부터 인심을 얻어서 드디어 왕위에 올랐다.

[17] 어느 날 무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에 가려고 용화산 밑 큰 못가에 이르니 미륵삼존(彌勒三尊)이 못 가운데서 나타나므로 수레를 멈추고 절을 했다. 부인이 왕에게 말한다.

“모름지기 여기에 큰 절을 지어 주십시오.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왕은 그것을 허락했다. 곧 지명법사에게 가서 못을 메울 일을 물으니 신비스러운 힘으로 하룻밤 사이에 산을 헐어 못을 메워 평지를 만들었다.

여기에 미륵삼존의 상(像)을 만들고 회전(會殿)과 탑과 나무를 각각 세 곳에 세우고 절 이름을 미륵사(彌勒寺)라 했다.

〈서동설화〉는 6개의 텍스트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텍스트 단위는 미시적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나누어진 것이다. 이러한 분석 단위는 다음에 이어질 텍스트 분석을 통해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앞(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설화 텍스트는 서사 텍스트 유형에 속하는 텍스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화 텍스트는 서사 텍스트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이 곧 텍스트를 분석하는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분석 기준으로 적용할 텍스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앞(2장)에서 언급한 서사 텍스트의 정의(또는 특성)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 서사 텍스트의 정의

일정한 구조(‘시공간구조’, ‘행위자구조’, ‘사건구조’)를 가진 허구적 이야기

(5)에 따르면 서사 텍스트는 ‘시공간구조’, ‘행위자구조’, ‘사건구조’를 갖고 있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서사 텍스트 유형에 속하는 설화 텍스트는 ‘시공간구조’, ‘행위자구조’, ‘사건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할 때 그 텍스트적 특성을 온전히 밝혀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설화 텍스트 〈서동설화〉를 ‘시공간구조’, ‘행위자구조’, ‘사건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sup>6)</sup>

### 3.1. 〈서동설화〉의 시공간구조 분석

분절한 〈서동설화〉 각 하위텍스트들에는 공통적으로 시공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등장한다. 기본적으로 〈서동설화〉에는 과거시제 종결어미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시공간적 배경을 갖고 있지만 〈서동설화〉는 하위텍스트에 따라 시공간구조가 더 세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T1에서는 다른 하위텍스트들과는 달리 현재시제 종결어미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제30대 무왕의 이름은 장이다”의 ‘이다’가 바로 그것으로, 이는 하위텍스트들과 구별되는 T1의 독자적인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T1이 해당 텍스트를 이야기하는 상대적 현재시점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의 이야기를 풀어나감으로써 텍스트를 전개해나간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sup>7)</sup>

6) ‘서동설화’라는 제목 또한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서동설화’라는 제목은 처음 텍스트가 생산될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 후대에 이르러 텍스트 전체의 내용을 고려해 임의적으로 붙여진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을 생략하기로 한다.

7) T1의 현재시제 사용은, ‘일연(一然)’이 《삼국유사》를 집필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덧붙인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T1이 ‘일연’이 후에 덧붙인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이 역시도 생산자의 의도가 반영된 〈서동설화〉 전체 텍스트의 한 일부라고

〈서동설화〉 텍스트에 나타나는 표현들을 바탕으로 각 하위텍스트들의 시공간구조를 분석해보면, T2에서는 ‘장을 낳았(다)’와 ‘어릴 때’, 그리고 ‘서울’이라는 표현을 통해 텍스트가 ‘서동의 출생과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서울’이라는 공간 속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서울’은 백제의 수도를 일컫는 것<sup>8)</sup>으로, T2는 텍스트를 이야기하는 현재를 기준으로 ‘백제의 수도’에서 전개되는 ‘가장 먼 과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3에서는 직접적으로 시간적 표현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머리를 깎고 서울로 가(다)’와 ‘아이들을 피어서 (동요를) 부르게 하(다)’라는 표현을 통해 서동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의 이야기임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선화공주가 귀양을) 떠나려 하(다)’라는 표현을 통해 서동이 만든 동요로 인해 선화공주가 귀양을 가게 되었으며, 이는 ‘서동의 성장과 동요 제작’ 사건 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전 하위텍스트로부터 시간적 흐름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즉 T3는 T2와 달리 신라의 수도인 ‘서울’에서 전개되는 텍스트이며, T2보다는 시간적 흐름이 진행된 ‘먼 과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T4는 T3와 T5의 경계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T4의 ‘공주가 장차 귀양지에 도착하려는데’ 표현은 T3에서 선화공주가 귀양을 떠난 이후 귀양지<sup>9)</sup>로 가는 과정이며, ‘신라’에서 떠났지만 ‘백제’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즉 T4는 T3보다 시간적으로 이후의 사건을 담고 있으며, 공간적으로 신라와 백제의 경계에 놓여있는 것이다.

---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8) T2의 ‘서울’은 신라가 아닌 백제의 수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서동은 백제 출신임이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T3에서 ‘서울로 가(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백제의 수도에서 신라의 수도로 갔다고 해석해야 적절하기 때문이다.

9) 〈서동설화〉에는 ‘선화’의 귀향지가 “먼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뿐 어디인지는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T5에서 “함께 백제로 와서”라는 표현을 통해, 귀향지가 어디 인지를 차치하더라도 결국 종착지는 ‘백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T5~T6에서는 ‘함께 백제로 와서’라는 표현을 통해 공주가 백제에 도착한 뒤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시간적 흐름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T5~T6에서는 ‘백제’라는 표현과 백제의 영토 안에 있는 지형지물인 ‘용화산, 사자사’<sup>10)</sup>라는 표현을 통해 공간적 배경이 T3~T4와 다르게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T7에서도 ‘사자사, 용화산과 같이 백제의 영토 안에 있는 지형지물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공간적 배경이 T5~T6에서 이어지는 ‘백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T7은 ‘어느 날’이라는 표현을 통해 T2~T6와 시공간적으로 다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나타내며, 이는 다른 하위텍스트들과 달리 현재 시점과 가장 가까운 ‘근 과거’의 시간적 배경을 갖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미시적 분석을 바탕으로 <서동설화>의 시공간 거시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서동설화>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시간에서 전개되는 이야기이지만 하위텍스트에 따라 ‘가장 먼 과거’, ‘먼 과거’, ‘근 과거’로 세분화할 수 있다. 또한 <서동설화>는 ‘신라’와 ‘백제’의 공간에서 전개되는 이야기이며 하위텍스트에 따라 공간이 분할되어 나타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6) <서동설화>의 시공간구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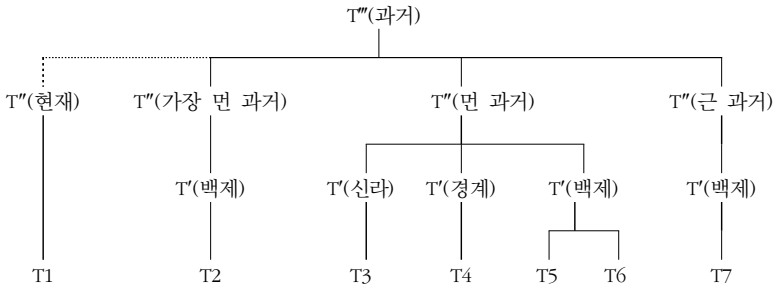
##### ㄱ. 미시구조 분석<sup>11)</sup>

T1(현재) → T2(출생), 어릴 때/백제 → T3(성장 후)/신라 → T4  
 ((귀양지도 이동)/신라와 백제의 경계) → T5~T6((선화와의 만남 후)/백제) → T7(왕위등극 후)/백제

10) 여기서 ‘용화산’은 전라북도 익산시에 있는 산의 지명이며, ‘사자사는 ‘용화산’에 있던 절의 이름이다(한국민속대백과사전, 2012). 당시 전라북도 익산은 백제의 영토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사자사’와 ‘용화산’이라는 표현은 텍스트의 공간적 배경이 백제 영토 내부라는 것을 말해준다.

11) 여기서 ‘( )’를 통해 제시한 것은 실제 텍스트에서 특정 표현을 통해 시공간적 배경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텍스트의 내용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바를 임의로 제시한 것이다.

ㄴ. 거시구조 분석



〈서동설화〉의 시공간구조는 (6)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서동설화〉는 세 가지 측면에서 독특한 시공간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서동설화〉는 ‘과거’의 공통적인 시공간적 구조 속에서 더 세분화된 시공간적 구조를 갖고 있다. 〈서동설화〉 텍스트 전체에서 과거시제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라는 시공간적 구조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지만, 서동의 출생과 어린 시절로 대변되는 ‘가장 먼 과거(T2)’, 선화공주와의 만남으로 대변되는 ‘먼 과거(T3~T6)’, 서동의 왕위등극으로 대변되는 ‘근 과거(T7)’와 같이, 과거라는 시공간에서 더 세분화된 시공간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둘째, 〈서동설화〉는 역행적 시간 흐름과 순행적 시간 흐름이 동시에 나타난다. 〈서동설화〉의 T1에서는 다른 하위텍스트들과 달리 현재 시제의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있다.<sup>12)</sup> 이는 T1이 과거시제 종결어미를 사용하는 다른 하위텍스트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현재→과거’로의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 역행적 시간 흐름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밖의 하위텍스트는 ‘가장 먼 과거’, ‘먼 과거’, ‘근 과거’라는 구별된 시공간

12) 따라서 〈서동설화〉 시공간구조를 제시한 (6ㄴ)에서도 다른 하위텍스트들과 구별되게 점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조를 갖고 있지만 이들은 시간적 흐름에 따라 배치·전개되고 있다. 즉 ‘현재→가장 먼 과거→먼 과거→근 과거’ 시공간구조의 흐름에 따라 텍스트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서동설화〉는 전반부와 후반부에 구별되는 시공간을 갖고 있다. 배경을 제시하는 T2를 제외하고 〈서동설화〉는 T4를 경계로 전반부의 시공간은 ‘서울(신라의 수도)’이며 후반부의 시공간은 ‘백제’이다. 이 두 시공간은 텍스트 전체에서 전반부, 후반부에 따라 구분되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특징은 〈서동설화〉의 시공간구조가 이야기를 하는 현재와 세분화된 과거로 이루어져 현재에서 과거로, 먼 과거에서 근 과거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반부와 후반부에 따라 구분된 시공간적 구조를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7) 〈서동설화〉 시공간구조의 특성

- ㄱ. 역행적 흐름과 순행적 흐름의 혼합
- ㄴ. 전반부와 후반부의 시공간구조 구분

### 3.2. 〈서동설화〉의 행위자구조 분석

설화 텍스트를 구성하는 다른 한 가지 요소는 ‘행위자’이다. ‘행위자’는 설화 텍스트의 사건을 이끌어가는 인물이다. 〈서동설화〉에는 다른 설화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며 한 인물을 중심으로 다른 인물들이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행위자구조를 중심으로 한 〈서동설화〉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1에는 ‘무왕’과 ‘장’이 등장한다. 이 표현들은 텍스트 전체를 이끌어가는 행위자 ‘서동’을 공지시하는 표현들이다. 다만 이때 ‘무왕’과 ‘장’은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닌, 단순 지칭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T2에서도 ‘그 어머니’에서의 ‘그’와 ‘장’, ‘서동’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여기서 ‘그’는 ‘서동’을

공지시하는 표현으로서 T1과 T2를 ‘서동’이라는 매개로 밀접하게 관련시킨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장’과 ‘서동’이라는 표현은 해당 텍스트에서 직접적인 행위자로 등장하지 않고 단순히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행위자로 볼 수는 없지만 T1과 T2를 관련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T3에서도 ‘서동’을 가리키는 ‘그’가 사용되고 있다. 특히 T3에서는 ‘선화’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앞의 텍스트들과 구별된다. 다만 여기서 ‘선화’는 직접적인 행위자라기보다는 단순히 지칭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T4에서는 앞에서 등장했던 ‘선화’를 공지시하는 ‘공주’와, ‘서동’이 모두 출현하는데, 이들 인물들은 단순히 등장하는 것이 아닌 “그저 우연히 믿고 좋아하여, 서동을 따라가면서 비밀리에 정을 통했다”라는 표현을 통해 두 인물이 직접적으로 행위를 함으로써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T5~T6에서도 T4와 동일한 양상이 반복되지만 T6에서는 ‘지명법사’와 ‘진평왕<sup>13)</sup>’이라는 인물이 직접적인 행위자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명법사는 T6에서 ‘법사’라는 표현을 통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데, 서동을 돕는 조력자로서 서동과 관련을 맺는다. 또한 진평왕 역시 “서동을 존경해서 항상 편지를 보내어 안부를 물었다” 표현을 통해 서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T7에서 서동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무왕’이 처음 사용된다는 것이다. ‘무왕’ 표현이 서동을 공지시한다는 점에서 T7을 이전 하위텍스트와 관련시키고 있는 동시에 T1에서 사용했던 ‘무왕’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 번 사용함으로써 텍스트 전체의 응집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T7에는 앞에서 등장했던 선화를 지시하는 ‘부인’과 ‘지명법사’가 다시 등장하는데, 이들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서동을 돕는 조력자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관련을 맺는다.

---

13) ‘진평왕’은 T3에서 처음 출현하다. 하지만 T3에서 ‘진평왕’은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닌, ‘선화’를 소개하는 데 간접적으로 출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평왕’이 직접적인 행위자로 처음 출현하는 것은 T6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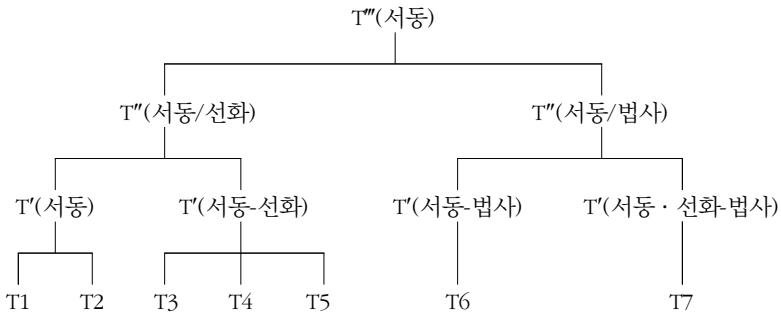
이와 같은 행위자 분석을 통해서 〈서동설화〉에는 주요 행위자로 ‘서동, 선화, 지명법사’가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4)</sup>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서동설화〉 텍스트의 중심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서동’은 텍스트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그 밖의 인물들은 모두 서동과의 관련 속에서만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8) 〈서동설화〉의 행위자구조 분석

ㄱ. 미시구조 분석

T1[(무왕)] → T2[(서동)] → T3[서동,(선화)] → T4[서동,선화]  
 → T5[서동,선화] → T6[서동,선화,지명법사]  
 → T7[무왕,부인,지명법사]

ㄴ. 거시구조 분석<sup>15)</sup>



14) 〈서동설화〉의 등장인물 ‘진평왕’은 서동에게 항상 존경의 편지를 보내 안부를 물음으로써 서동을 신라의 왕이 인정한 능력 있는 인물로 평가받게 하고, 이를 통해 왕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진평왕’은 ‘선화’나 ‘지명법사’와 달리 직접적인 조력이라고 보기 어렵고 텍스트의 출현 비중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텍스트의 행위자구조에서 제외한다. 이 밖의 ‘어머니’, ‘아이들’, ‘백관들’, ‘왕후’도 텍스트에 출현하지만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거나 텍스트 내에서 출현 비중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자세히 논의하지 않는다.

15) 거시구조에서 ‘/’는 해당 하위텍스트에 등장하는 중심인물과 주변인물을 함께 제시(/를 기준으로 왼편은 중심인물, 오른편은 주변인물)하는 기호이며, ‘·’는 인물 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제시한 기호이다.

(8)을 통해 〈서동설화〉 행위자구조는 다음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서동설화〉는 텍스트 전체에서 ‘서동’이 중심 행위자로 등장한다. 실제 〈서동설화〉의 행위자구조를 분석한 (8)을 보면, 서동은 공지시 표현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재수용되며 전체 텍스트에서 빠짐없이 등장한다. 즉 ‘서동’이라는 인물이 텍스트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심인물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둘째, 〈서동설화〉의 행위자들은 모두 중심 행위자와 관련을 맺는다. 텍스트의 앞부분에서는 중심 행위자 ‘서동’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된다면, 텍스트 후반부로 진행될수록 중심 행위자와 관련을 맺는 주변 행위자가 추가되는 양상을 보인다. T3부터 등장하는 ‘선화’와 T6부터 등장하는 ‘지명법사’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텍스트 전체에서 독자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서동과 선화’, ‘서동과 지명법사’와 같이 중심 행위자인 ‘서동’과의 관련 속에서만 출현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셋째, 〈서동설화〉의 행위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는 생산자의 의도를 보여주는 재수용 표현이 등장한다. ‘서동, 선화, 공주, 지명법사, 진평왕’과 같이 실제적인 표현을 통해 행위자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T1과 T7에서는 ‘무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생산자는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즉 ‘무왕’이라는 표현을 통해 〈서동설화〉는 단순히 ‘서동’이라는 인물에 대한 허구의 이야기가 아닌, 텍스트 전체가 ‘현재의 무왕’에 대한 이야기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9) 〈서동설화〉 행위자구조의 특성

- ㄱ. 서동 중심의 이야기 구조
- ㄴ. 중심 행위자와 주변 행위자가 관련을 맺는 이야기 구조
- ㄷ. 재수용 표현의 의도적 사용

### 3.3. 〈서동설화〉의 사건구조 분석

설화 텍스트 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마지막 요소는 ‘사건구조’이다. 사건구조는 시공간 배경 안에서 중심 행위자의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사건구조에 대한 분석은 설화 텍스트의 분석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T1에는 서동은 지금의 ‘무왕’이며 ‘장’이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또한 T2는 서동의 출생과 성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텍스트의 시공간구조와 중심인물이 소개된다. T3부터는 본격적인 사건들을 제시하는데, T3에서는 서동과 깊은 관련을 맺는 인물인 ‘선화’가 간접적으로 소개되며 서동의 능력이 드러난다.

서동은 T3에서 선화를 취하기 위해 동요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부르게 하고 이를 통해 유언비어를 만드는 지력을 발휘하는데, 이러한 지력을 통해 T4에서 서동은 자신의 의도대로 선화와 깊은 관련을 맺게 된다. 이를 통해 서동은 ‘선화와의 만남’이라는 성공을 이루게 된다.

이어지는 T5에서도 서동의 능력이 드러나는데, 서동은 “황금을 흙덩이처럼 쌓아 두었다”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이 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다만 서동은 ‘황금’이 재력의 상징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는데 이를 알게 해준 인물이 바로 ‘선화’다. 따라서 선화는 단순한 애정 관계에 그치지 않고, 후에 진평왕과의 교류를 성사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여 서동이 왕위에 등극할 수 있게 돕는 ‘조력자’라고 할 수 있다.

T6에서는 서동의 또 다른 조력자인 ‘지명법사’가 등장한다. 지명법사는 T6에서神通한 힘으로 서동의 황금을 신라 궁중으로 옮겨주는데, 이러한 사건을 통해 지명법사 역시 서동이 인심을 얻어 왕위에 등극할 수 있게 돕는 ‘조력자’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T7은 왕위에 등극한 이후 서동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시공간적으로 앞의 하위텍스트들과 구분된다.<sup>16)</sup> 사건구조에서도 T7은 앞의

16) T7이 T2~T6와 텍스트적 특성 면에서 구분된다는 특징은 《삼국유사》 편찬 당시 T7이

하위텍스트들과 구분되는데, 이는 T2~T6가 서동의 왕위등극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T7의 사건은 왕위에 등극한 이후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T7에서는 조력자 선화와 지명법사의 도움으로 서동이 미륵사를 창건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의 하위텍스트들과 마찬가지로 서동의 또 다른 성공, 즉 ‘업적달성’이라는 성공을 위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미시적 분석을 바탕으로 〈서동설화〉의 사건 거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미시적 분석에 따르면, 배경을 제시하는 T1과 T2를 제외한 〈서동설화〉의 하위텍스트들은 서동의 능력을 바탕으로,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 서동의 성공을 이뤄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기존 조력자들의 도움을 통해 새로운 성공을 이룸으로써 전체적으로 조력자들의 도움과 서동의 성공이 반복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0) 〈서동설화〉의 사건구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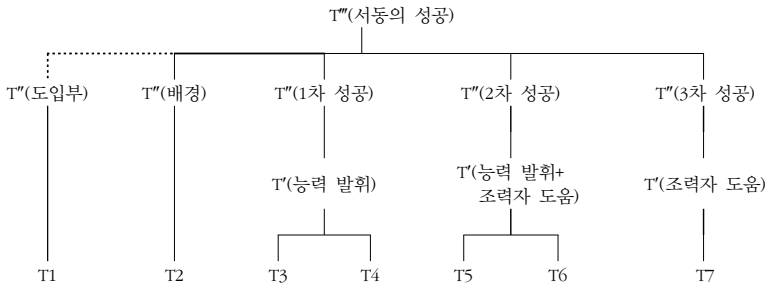
##### ㄱ. 미시구조 분석

T1[무왕 소개] → T2[배경 소개] → T3[서동의 능력 발휘]  
→ T4[서동의 성공(조력자 선화 만남)] → T5[서동의 능력 발휘+조력자 선화의 도움] → T6[조력자 법사의 도움 | 서동의 성공(왕위등극)] → T7[조력자 법사의 도움 | 서동의 성공(업적달성)]

##### ㄴ. 거시구조 분석

---

새로이 덧붙여진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T7이 후에 덧붙여진 텍스트라고 하더라도 이 역시 ‘무왕의 업적 칭송’을 드러내려는 생산자의 의도가 반영된 텍스트로서, 〈서동설화〉를 구성하는 하나의 하위텍스트라고 보아야 한다.



(10)을 보면 <서동설화>의 사건구조가 가지는 몇 가지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서동설화>는 서동의 성공을 중심으로, 서동이 조력자를 만나고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구조화되고 있다. <서동설화>의 앞부분에서는 중심인물 서동이 능력(지력)을 발휘하여 주된 조력자인 선화와 만나게 되는 과정을 상세히 제시(T3-T4)하고 있으며, 조력자의 도움으로 서동의 능력(재력)이 발휘되어 왕위에 등극(T5-T6)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서동설화> 뒷부분에서는 조력자의 도움으로 서동이 '업적달성'이라는 또 다른 성공(T7)을 이루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서동설화>는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 서동이 성공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서동설화>는 궁극적으로 '서동의 성공'에 귀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서동설화>에는 크게 3가지 성공이 드러나 있다. 첫 번째 성공은 '선화와 만남'이며, 두 번째 성공은 '서동의 왕위등극', 세 번째 성공은 '무왕의 업적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공들은 단순히 <서동설화>에 나열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텍스트 전체가 이 성공들에 귀결되기 위해 응집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T3~T4에서는 '선화와 만남'을 위해서 서동이 능력을 발휘하는 사건을, T5~T6에서는 조력자 선화와 지명법사의 도움으로 '왕위 등극' 목표를 달성하는 사건을, T7에서는 조력자의 도움으로 '업적달성' 목표를 달성하는 사건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서동설화> 전체

텍스트는 서동이 이루고자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서동설화〉는 이질적인 T1의 특성을 통하여 생산자의 목소리가 담긴 도입부를 구조화하고 있다. T1은 다른 하위텍스트들과 달리 현재시제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공간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특히 T1은 전체 텍스트에서 전개되는 일련의 사건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지 않는 부분으로, 어떠한 사건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T1은 본문과 구별되는 ‘도입부’로 상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도입부는 텍스트 생산자의 주관적 견해를 제시하고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도입부로 상정할 수 있는 T1은 〈서동설화〉 텍스트가 현존하는 실재 인물의 이야기라는 점을 말해주는 동시에 한 인물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생산자의 의도를 드러낸다. 즉 현재시제 종결어미를 사용하는 표현을 텍스트의 가장 앞에 배치함으로써 텍스트 전체에서 반복되는 한 인물을 강조하고, 텍스트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더하여 이야기의 신빙성을 더하려는 생산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1) 〈서동설화〉 사건구조의 특성

- ㄱ.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구조화
- ㄴ. 중심인물의 성공에 귀결되는 구조
- ㄷ. T1의 이질성: 전체 텍스트의 도입부

#### 4. 결론: 〈서동설화〉의 영웅설화적 특성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텍스트언어학적 분석을 통해 〈서동설화〉의 텍스트 구조를 살펴보았다. 특히 텍스트 분석에서는 설화 텍스트를 구성하는 중심

요소인 ‘시공간구조’, ‘행위자구조’, ‘사건구조’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분석하여 〈서동설화〉의 텍스트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고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서동설화〉의 텍스트 구조적 특성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2) 〈서동설화〉의 텍스트 구조적 특성

가. 시공간구조 특성

- ㄱ. 역행적 흐름과 순행적 흐름의 혼합
- ㄴ. 전반부와 후반부의 시공간구조 구분

나. 행위자구조 특성

- ㄱ. 서동 중심의 이야기 구조
- ㄴ. 중심 행위자와 주변 행위자가 관련을 맺는 이야기 구조
- ㄷ. 재수용 표현의 의도적 사용

다. 사건구조 특성

- ㄱ.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구조화
- ㄴ. 중심인물의 성공에 귀결되는 구조
- ㄷ. T1의 이질성: 전체 텍스트의 도입부

(12)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서동설화〉의 텍스트 구조적 특성으로 보았을 때 〈서동설화〉의 구조에는 남녀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서동설화〉를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 정도로 치부<sup>17)</sup>해서는 안 되며, 〈서동설화〉는 ‘영웅설화’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한국민속대백과사전(2012)에서 제시한 영웅설화의 특성을 제시한 것이다.

---

17)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 정도로 치부’한다는 것은 기존의 〈서동설화〉에 대한 모든 연구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본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직까지도’ 〈서동설화〉를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평가하는 몇몇 문헌들-1장에서 언급한 《한국민속대백과사전(2012)》과 같은-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다.

(13) 영웅설화의 특성

- ㄱ. 영웅 개인을 중심으로 한 줄거리의 전개
- ㄴ. 지배적 질서에서의 소외된 개인적 특성
- ㄷ. 영웅의 면모가 보이는 능력을 통한 혁명 시도
- ㄹ. 조력자의 등장

(12)와 (13)을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서동설화〉는 영웅설화적 특징을 다분히 갖고 있다. 먼저 (13ㄱ)은 (12나ㄱ,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서동설화〉의 행위자구조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서동설화〉 전체 텍스트는 ‘서동’이라는 인물 중심으로 텍스트가 전개되기 때문이다.

(13ㄴ)의 특성은 (12가ㄴ)과 T2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서동설화〉는 전반부(T3~T4)와 후반부(T5~T7)의 시공간적 배경이 구별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서동이 성장한 시공간적 배경, 조력자 선화의 출신지, 선화를 만난 시공간적 배경은 모두 ‘신라의 서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서동의 출신은 ‘백제’이다. 즉 백제인임에도 타국 신라의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고 중요한 조력자를 만나게 되는 서동의 개인적 특성은 지배적 질서에서 소외된 개인의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T2에서는 서동을 ‘과부의 아들’이며 ‘마를 캐다가 파는’ 일을 하는 인물로 소개한다. ‘과부의 아들’과 ‘채집·상업을 통한 생계유지’라는 서동의 개인적 특성은 일반적(지배적)이지 않은 특성으로서, 이러한 특성도 서동이 지배적 질서에서 소외된 개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3ㄷ)은 (12다ㄱ,ㄴ)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서동설화〉 텍스트 전체가 중심인물인 서동의 능력을 바탕으로 성공에 귀결되는 사건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서동은 자신의 지력을 발휘하여 선화와의 만남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조력자의 도움으로 자신의 재력을 발휘함으로써 왕위등극이라는 혁명을 시도·성공한다는 점에서 영웅설화적 특징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3ㄹ)은 (12나ㄴ)과 (12다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서동설

화) 텍스트는 조력자인 선화와 지명법사가 서동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조력을 한다는 점에서 영웅설화의 특성 중 하나인 조력자의 도움을 받고 영웅이 된다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서동설화〉는 시공간구조, 행위자구조, 사건구조에서 영웅설화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동설화〉의 구조적 특성과 영웅설화의 특성을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4) 〈서동설화〉의 영웅설화적 특성

- |                                |   |                 |
|--------------------------------|---|-----------------|
| • 전반부와 후반부의 시공간구조 구분<br>서동의 배경 | → | • 지배적 질서에서의 소외  |
| • 서동 중심의 이야기 구조                | → | • 영웅을 중심으로 한 전개 |
| •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과정의 반복           | → | • 조력자의 등장       |
| • 중심인물의 성공에 귀결되는 구조            | → | • 능력을 통한 혁명 시도  |

〈서동설화〉의 텍스트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서동설화〉 텍스트는 백제 무왕의 영웅적 면모를 드러내기 위한 영웅설화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서동설화〉의 영웅설화적 면모를 더욱 선명히 드러낼 수 있었다. 이처럼 텍스트언어학적 분석 방법은 기존 연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서동설화〉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2009), 문화콘텐츠닷컴(<http://www.culturecontent.com>).

강은실(2007), 서사텍스트의 거시구조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국어교육연구 4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34쪽.

강은혜(2006), 한국설화문학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고영근(2011), 텍스트 과학, 집문당.

국립민속박물관(2012), 한국민속대백과사전(<http://folkency.nfm.go.kr>).

권영민(2002), 한국현대문학사1, 민음사.

김철홍(2012), 서동요의 배경설화 연구, 국어교과교육연구 21, 국어교과교육학회, 83-106쪽.

박용식(1981), 서동설화의 일고찰, 어문논집 22, 안암어문학회, 49-60쪽.

사재동(1999), 한국문학유통사의 연구 I, 중앙인문사.

유경환(2000), 서동요와 서동설화의 원형적 상징: 영웅출현원리를 중심으로, 새국어 교육 60, 한국국어교육학회, 293-314쪽.

윤석민(1999), 설화텍스트의 대화 분석 -화행적 기능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6, 텍스트언어학회, 107-151쪽.

윤석민(2004), 텍스트언어학과 문학작품 분석, 한국어학 25, 한국어학회, 53-87쪽.

윤석민(2011), 서사텍스트의 텍스트유형론적 특성과 분석 -이론과 적용-, 국어교육 136, 한국어교육학회, 67-105쪽.

장덕순(2001),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조동일(2005), 한국문학통사 1(제4판), 지식산업사.

채규현(2017), 《독립신문》 논설의 텍스트유형론적 연구, 텍스트언어학 43,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73-300쪽.

텍스트언어학회(2004), 텍스트언어학의 이해, 박이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예찬(2011), 서동설화의 주체 연구, 온지논집 28, 온지학회, 87-110쪽.

화경고전문학연구회(1998), 설화문학연구 하, 단국대학교출판부.

Propp, Vladimir Aioakovlevich(1971), *Morphology of the Folktale*, Texas: University of Texas Press. (유영대 역(2007), 민담형태론, 새문사.)

van Dijk, T. A.(1980), *Textwissenschaft. Eine interdisziplinäre Einführung*, Tübingen: Max Niemeyer Verlag. (정시호 역(1995), 텍스트학, 민음사.)

〈핵심어〉 서동설화, 텍스트, 텍스트언어학적 분석, 텍스트구조, 시공간구조, 행위자 구조, 사건구조, 영웅설화적 특성, 서동과 선화, 조력자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 320호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010-8490-1133

전자우편: corbgus6242@naver.com

투고논문접수일	2019년 5월 21일
논문심사일	2019년 5월 24일
게재확정일	2019년 6월 13일